2010/11년 FAO 주요 곡물 수급 전망*

윤 종 열

1. 들어가기

최근 세계 농식품 가격은 상승세에 있으며, 낮은 곡물 재고수준은 2010/11년 국제 곡물 수급 상황을 더욱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농식품 가격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최근 몇 달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FAO 식품가격지수는 197P로 6월에 발표된 식품가격지수보다 34P 증가했고, 식량위기로 식품가격이 정점에 달했던 2008년보다는 불과 16P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곡물 가격 상승세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는데 특히, 주요 곡물 생산국의 생산량 증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가격 상승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생산량 감소로 곡물 재고량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며, 2010/11년 국제 시장의 곡물 수급 상황은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9월 중반이후 시작된 달러화 약세도 곡물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미국의 통화 약세는 달러로 가치가 매겨진 상품(농산물 및 비농산물)의 투기적 수요를 증가시켜 세계 식품 교역시장의 교란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켰다.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2010년 식품 수입결제어음도 크게 증가했고, 이는 2007-08년 식량 위기 때와 근접한 수준이었다.

가격 상승 압박은 8월 이후 곡물 시장, 특히 밀, 보리를 중심으로 감지되었다. 이에 FAO는 지난 9월 24일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곡물 가격 상승의 구체적인 원인 및 대책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특히, 식품 가격 급등 시 정부의 각종 대응책,

---

* 본 내용은 FAO가 2010년 11월에 발간한 Food Outlook 전망보고서의 내용 중 주요 곡물 전망 부분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종열 연구원이 발췌하여 번역하였다.(fsyoon76@krei.re.kr, 02-3299-4257)

선물 거래시장의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예측불허의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곡물 수급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의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2008년에 경험했던 가격 급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0/11년 곡물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여 식량위기 당시보다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수의 최빈국들에게 매우 중요한 식량 자원인 쌀, 밀, 옥수수는 현재 공급량이 충분하여 2년 전 식량 위기당시의 어려움이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요 국가의 곡물 생산량 전망치가 최근에 올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어 현재 국제 곡물 가격은 2007년/08년보다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관심은 2010/11년도 곡물 재배규모에 집중되고 있다. 예상되는 세계 곡물 재고량 감소분을 고려할 때, 2010/11년 곡물 재배규모는 국제 곡물 시장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비관적이다. 세계 곡물 수요를 충족시키고, 곡물 비축량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규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곡물 가격 상승이 농가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들로 하여금 재배 면적 확대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곡물 재배 농가들이 가격 변화에 따라 곡물 대신 콩, 설탕, 면화 등으로 작목을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만약 시장에서 적정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결국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구매 시 높은 가격 지불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제 사회는 2011년 곡물수급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세계 곡물 수요를 충족시키고, 곡물 비축량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규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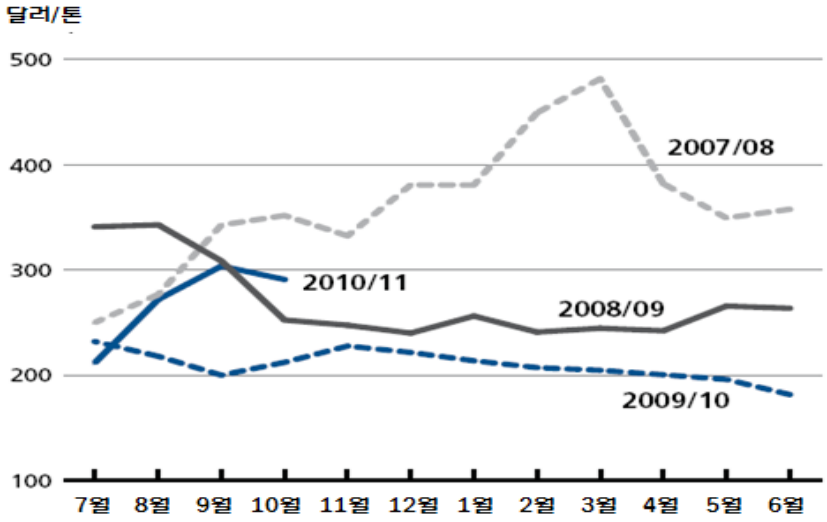
2. 밀

가격: 국제 밀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 지속

연초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냈던 국제 밀 가격은 7월부터 예상과 다른 상승 국면에 직면했다. 주요 국가의 밀 생산량이 연초 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 국제 밀 가격은 2010년 8월에 연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은 가뭄피해가 심각했으며, 주요 밀 수출국인 캐나다,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등도 기상악화로 밀 생산량 감소폭이 예상보다 컸다. 또한 러시아의 밀 수출 금지조치도 가격 급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제 밀 수급은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져 가격은 9월 말에서 10월초까지 다소 완화된 양상을 나타냈다. 10월 평균 밀 가격(US No. 2 Hard Red Winter f.o.b. 기준: 경질 적 동소맥)은 톤당 291달러로 9월보다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이는 2008년 식량 위기 당시보다 40%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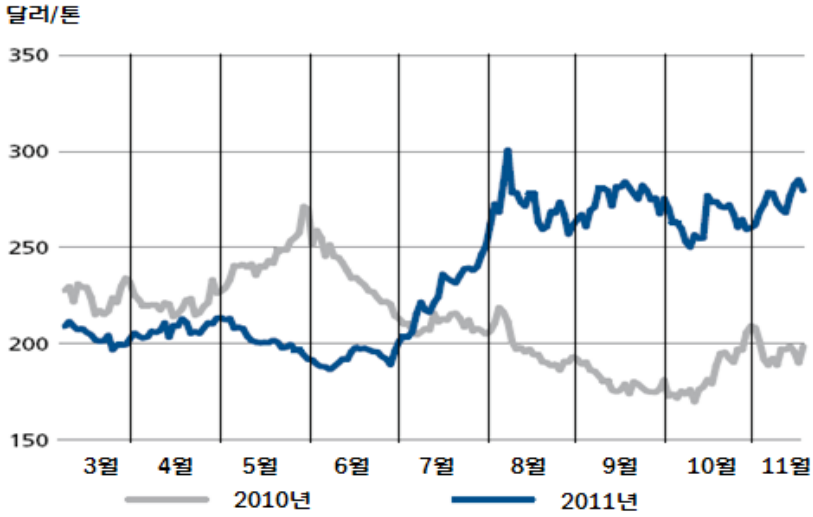
주요 국가의 밀 생산량이 연초 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 국제 밀 가격은 2010년 8월에 연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1 밀 수출 가격 동향 및 전망



주: 가격은 US No. 2 H.W. Gulf 기준임.
자료: FAO, 「Food Outlook 2010」.

그림 2 시카고 선물거래시장의 밀 가격 전망



자료: FAO, 「Food Outlook 2010」.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밀 재배면적 감소, 미국의 기상악화로 인한 밀 작황부진,

주요 생산국에서 농가들의 작목 전환으로 인한 총 식부면적 감소 등 세계 밀 생산은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은 최근까지 국제 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사료용으로 대체가 가능한 옥수수의 공급량 감소, 달러화 약세도 밀 가격 강세를 견인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월 초, 시카고 선물거래시장에 내년 3월 인도분 밀 선물거래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41%, 금년 7월보다 39% 상승한 톤당 280달러를 나타냈다.

생산: 2010년 세계 밀 생산량 크게 감소

2010년 11월에 발표된 Food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세계 밀 생산량은 연초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된 6억 4,80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9년보다 5%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초에는 밀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감소하지만, 주요 생산 및 수출국의 작황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밀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기상악화로 단위당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여 전체 생산량은 연초에 예상했던 수치보다 크게 감소했다.

2010년 세계 밀 생산량은 2009년보다 5% 감소한 6억 4,8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요 생산국의 작황부진으로 연초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2010년 밀 수확은 대부분 종료되었다. 2010년 국가별(지역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은 밀 생산량 감소폭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근동지역 중 이란은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터키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산 밀 정식이 이미 진행중인 튀니지와 모로코는 극심한 가뭄으로 2010년 밀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유럽연합의 2010년 밀 생산량은 잦은 강우와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로 연초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었다. 한편, 주요 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고, 이는 세계 밀 생산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러시아는 가뭄피해로 2010년 밀 생산량이 작년보다 약 1,900만 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미지역 중 미국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수확량 증가로 2010년 전체 밀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캐나다의 2010년 밀 생산량은 봄철 기상여건 악화로 연초 예상치보다 크게 감소했다.

남미지역의 2010년 밀 생산량은 작황이 크게 부진했던 작년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주요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의 작황이 가뭄피해가 컸던 작년보다 크게 호전되었기 때문이다. 호주의 2010년 밀 생산량은 2,300만 톤으로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지역별 작황수준은 호주 동부지역이 양호한 반면, 서부 지역은 가뭄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세계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분	2008/09	2009/10 (추정치)	2010/11 (전망치)	2009/10년대비 2010/11년 증감률(%)
생산	684.8	682.6	647.7	-5.1
교역	139.1	128.1	121.0	-5.6
소비	647.3	659.8	668.0	1.2
식용	453.3	461.0	467.1	1.3
사료용	120.7	122.3	125.0	2.2
기타	73.3	76.4	75.9	-0.7
기말재고	179.8	200.9	180.9	-9.9
1인당 소비량				
세계(kg/년)	67.1	67.4	67.5	0.1
저소득식량부족국가 (kg/년)	57.5	58.0	58.2	0.3
세계 재고율(%)	27.3	30.1	27.3	
주요 수출국 재고율(%)	17.5	21.7	18.4	
밀 가격 지수 (200-2004=100)	2008	2009	2010 (1~10월)	2009년대비 2010년 증감률(%) (1~10월 기준)
	235	154	159	2

주: 1) 교역자료는 당해년 7월~익년 6월까지의 연산기준임.
2) 주요 수출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미국임.
3) 밀 가격 지수는 국제 곡물 위원회(International Grains Council: IGC) 자료임.

자료: FAO, 「Food Outlook 2010」.

표 2 주요 국가의 밀 생산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09 (추정치)	2010 (전망치)	2009대비 2010년 증감률(%)
유럽연합	138.5	136.0	-1.8
중국	115.1	115.1	-
인도	80.7	80.7	-
미국	60.4	60.1	-0.4
러시아	61.7	42.0	-32.0
캐나다	26.8	22.2	-17.3
호주	21.7	23.0	6.2
우크라이나	20.9	17.6	-15.8
터어키	20.6	19.5	-5.3
카자흐스탄	17.0	13.0	-23.5
이란	13.0	14.5	11.5
아르헨티나	7.5	11.5	53.5
이집트	8.5	8.6	0.9
기타	59.5	53.3	-10.5
세계	682.6	647.7	-5.1

주: 국가별 순위는 세계 총 생산량(2008~2010년 평균 생산량) 대비 국가별 밀 생산 비중을 나타냄.

자료: FAO, 「Food Outlook 2010」.

교역: 2010/11년 밀 교역량 감소 전망

2010/11년 세계 밀 교역량은 1억 2,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9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100만 톤 많은 수준이지만, 2009/10년보다는 4%, 2008/09년보다는 12% 적은 수준이다. 이처럼 세계 밀 교역량이 작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아프리카와 유럽연합의 밀 수입량 증가폭보다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밀 수입량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2010/11년 세계 밀 교역량은 1억 2,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9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100만 톤 많은 수준이지만, 2009/10년보다는 4%, 2008/09년보다는 12% 적은 수준이다.

2010/11년 아시아 지역의 전체 밀 수입량은 5,300만 톤으로 2009/10년보다 약 800만 톤 적은 수준이다. 특히, 이란은 자국내 밀 생산량 증가에 따른 밀 수입 금지조치 시행으로 아시아의 전체 밀 수입량 감소를 견인했다. 또한 한국도 흑해 지역의 국가들로부터 사료용 밀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중국, 시리아, 태국은 2009/10년산 밀 이월량 증가로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밀 수입이 비교적 적은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도 자국내 공급량이 충분하여 수입량 감소가 전망된다.

아프리카 밀 수입량은 작년보다 100만 톤 감소한 3,5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밀 수입 증가에 기인하는데, 이들 국가의 밀 수입량은 2009/10년보다 200만 톤 증가한 약 2,200만 톤으로 전망된다. 가뭄피해가 컸던 모로코는 밀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밀 수입이 비교적 적은 튀니지도 북아프리카 국가 중 밀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모로코는 자국내 밀 수급 안정을 위해 9월 중순에서 12월까지 의무수입 물량을 135% 늘릴 계획에 있다. 반면, 이집트의 2010/11년 밀 수입량은 자국내 이월량 증가로 2009/10년보다 120만 톤 감소한 9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사하라 이북 지역의 2010/11년 밀 총 수입량은 2009/10년보다 120만 톤 감소한 1,36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7/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국가별로는 케냐와 나이지리아의 수입량 감소폭이 가장 컸다.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지역의 2010/11년 밀 수입량은 2009/10년보다 소폭 증가한 2,0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최대 밀 수입국인 브라질의 2010/11년 밀 수입량은 기상호조로 자국내 밀 생산 증가가 예상되지만, 곡물 소비도 늘 것으로 보여 2009/10년과 비슷한 650만 톤이 전망된다. 반면, 멕시코의 밀 수입량은 자국내 생산량 감소로 2009/10년보다 30만 톤 증가한 33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11년 유럽연합의 밀 수입량은 수입량이 크게 적었던 2009/10년보다 200만 톤 증가한 96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던 러시아의 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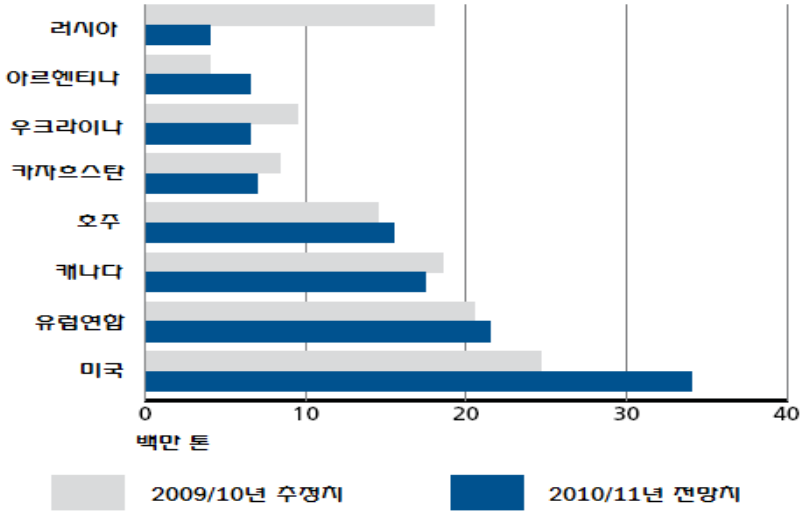
2010/11년 밀 수출량(5대 주요 수출국 기준)은 2009/10년보다 14% 증가한 9,200만 톤으로 전망된다. 2010/11년 미국의 밀 수출량은 3,3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95/96년 이후 최대 물량이며, 2009/10년보다 900만 톤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작황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수출량도 크게 늘 전망이다. 한편,

2010/11년 밀 수출량(5대 주요 수출국 기준)은 2009/10년보다 14% 증가한 9,200만 톤으로 전망된다.

호주와 유럽연합의 밀 수출량은 2009/10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캐나다는 자국내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출은 2009/10년보다 다소 추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호주, 유럽연합의 밀 수출 증가분은 독립국가연합국가들(CIS)의 수출 감소분을 상쇄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11년 러시아 밀 수출량은 2009/10년보다 1,400만 톤 감소한 3,50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는 금년에 극심한 가뭄피해로 8월 이후 밀 수출 금지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초 2010년 말까지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던 밀가루는 2011년 1월까지 연장되었다. 우크라이나도 자국내 밀 생산량 감소로 수출량을 축소시켰다. 2010/11년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량은 600만 톤이 예상되며, 이는 2009/10년보다 300만 톤, 2007/08년(1,260만 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0년 말까지 조곡 270만 톤(밀 50만 톤 포함)을 수출의무 할당량으로 정하여 공급했다. 그 밖에 수출비중이 낮은 카자흐스탄, 터키 등은 자국내 생산량 감소로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그림 3 국가별 밀 수출 전망



자료: FAO, 「Food Outlook 2010」.

소비: 2010/11년에도 밀 소비 증가추세 이어갈 듯

2010년 6월에 발표된 Food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밀 생산량 감소, 2010년 초 이후 가격 상승으로 밀 소비량은 2009/10년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2010년 11월에 발표된 동 보고서에 따르면, 밀 소비량은 2009/10년보다 1.2% 증가하여 전망치가 상향조정되었고, 이는 과거 10년간 밀 소비 추세를 능가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 2010/11년 전 세계 식용 밀 소비량은 2009/10년보다 1.3% 증가한 4억 6,700만 톤으로 전망되며, 개발도상국의 식용 밀 소비량은 2009/10년보다 1.5% 증가한 3억 3,400만 톤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식용 밀 소비량은 인구증가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세계 밀 1인당 소비량은 연간 약 68kg, 개발도상국의 밀 1인당 소비량은 연간 약 60kg 수준이다.

2010/11년 세계 밀 소비량은 2009/10년보다 1.2%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과거 10년간 밀 소비 추세를 능가한 수준이다.

2011/10년 사료용 밀 소비량은 2009/10년보다 2% 증가한 1억 2,500만 톤으로 전망된다.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육류 소비가 늘고 있어 식용보다는 사료용 이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11년 선진국의 사료용 밀 소비량은 전체의 약 80%인 1억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9/10년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사료용 밀 최대 소비시장인 유럽연합의 2010/11년 소비량은 공급량 부족으로 2009/10년(5,300만 톤)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독립국가연합(CIS) 중 특히, 러시아의 2010/11년 사료용 밀 소비량은 2009/10년보다 350만 톤 증가한 2,000만 톤이 전망되며, 이는 199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러시아는 사료용 밀 소비 증가로 사료용 보리 및 옥수수 소비는 크게 줄 전망이다. 한편, 에탄올 제조 등 산업용으로 이용될 밀 소비량은 2009/1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에탄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 분야에 사료용 밀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고: 밀 재고량 크게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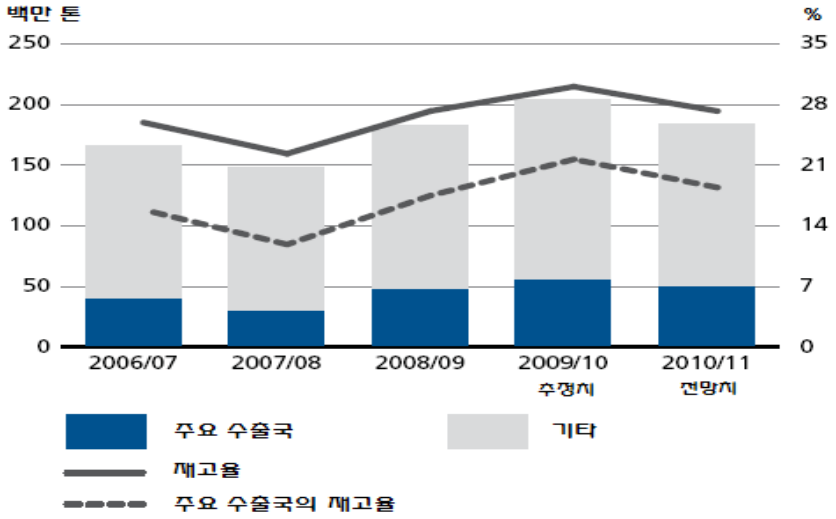
2010/11년 세계 밀 재고량은 1억 8,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9/10년보다 10% 감소한 수준이지만, 2008년보다 25% 높은 수준이다.

2010/11년 세계 밀 재고량은 1억 8,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0년 6월에 발표된 Food Outlook 보고서의 재고량 전망치보다 1,300톤 하향조정된 수준이다. 하향조정된 밀 재고량은 2009/10년보다 10%(2천만 톤 감소) 감소한 수준이지만, 2008년(1억 4,500만 톤)보다 25%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재고량 전망치가 하향조정된 이유는 주요 밀 생산국 특히, 미국,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며 러시아의 밀 재고량은 가뭄피해로 약 400만 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11년 밀 재고율은 27.3%로 전망된다(2010년 11월호 Food Outlook 보고서). 이는 2009/10년(30.1%)보다 2.8%P 감소한 수준이지만, 2007/08년(22.3%)보다 5.0%P 높은 수준이다.

2010/11년 주요 밀 수출국의 재고량은 2009/10년보다 600만 톤 감소한 4,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지난 5년간 두 번째로 높고, 2008년보다는 1,900만 톤 많은 수준이다. 주요 수출국 중 재고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2010/11년 밀 기말재고량은 수출 및 소비 증가로 인해 2009/10년보다 350만 톤 감소한 2,310만 톤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밀 재고량은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며, 재고량이 크게 부족했던 2007/08년보다는 무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2010/11년 밀 재고량은 수출량

증가와 생산량 감소로 2009/10년보다 250만 톤 감소한 1,550만 톤이 예상된다. 한편, 2010/11년 주요 수출국의 밀 재고율은 2009/10년보다 3.3%P 감소한 18.4%가 예상되지만, 이는 가격이 크게 높았던 2007/08년(11.8%)보다 6.6%P 높은 수준이다.

그림 4 밀 재고량 및 재고율



자료: FAO,「Food Outlook 2010」.

2. 조곡

가격: 협소해진 시장으로 인해 가격 상승 부추겨

이상기후와 미 달러 약세 등 시장의 외적 요소들로 인해 대부분의 조곡 가격은 2010/11년 7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조곡들이 2010/11년(7월)부터 가격 상승세가 시작되었다. 최근 몇 주간의 미 달러 약세와 다른 시장의 외적 요소들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보리 가격은 처음으로 급등세를 보였는데, 특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한 이유로 러시아연방이 곡물수출금지를 선언한 이후에 심화되었다. 가격 상승은 10월까지 계속되어, 루앙산 사료용 보리 가격은 7월 대비 52%, 전년 대비 72% 상승한 톤당 평균 264달러였다.

세계 옥수수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보리와는 달리 주로 9월 이후에 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10월 초 미국의 작황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다. 10월 미국산 옥수수 벤치마크(옐로우, 2등급, 인도분) 가격은 톤당 236달러로, 이번 분기 초 대비 47%, 전년 대비 40% 상승하였다. 지속적인 보리와 사료용 밀 공급 축소로 인해 옥수수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수수(옐로우 Gulf) 가격은 10월 평균 톤당 231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여, 보리보다는 덜하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주간 가격은 미 달러 약세로 인해 더욱 상승하였다. 11월 초의 3월 인도분 시카고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3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하였다. 현재 수준에서, 옥수수 가격은 2008년 6월의 최고가에 비해 16% 정도 낮은 수준이다.

표 3 세계 조곡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분	2008/09	2009/10 (추정치)	2010/11 (전망치)	2009/10년대비 2010/11년 증감률(%)
생산	1,142.4	1,125.2	1,102.0	−2.1
교역	113.0	114.7	116.0	1.2
소비	1,089.4	1,113.3	1,125.7	1.1
식용	192.2	191.5	195.6	2.1
사료용	625.0	626.6	626.8	0.0
기타	272.1	295.1	303.2	2.7
기말재고	216.5	225.3	198.4	−12.0
1인당 소비량				
세계(kg/년)	28.5	28.0	28.3	0.9
저소득식량부족국가 (kg/년)	29.4	28.7	29.1	1.3
세계 재고율(%)	19.5	20.0	17.1	
주요 수출국 재고율(%)	14.6	14.7	8.8	
FAO 조곡 가격 지수 (200−2004=100)	2008	2009	2010 (1~10월)	2009년대비 2010년 증감률(%) (1~10월 기준)
	211	157	164	5

주: 1) 교역자료는 당해년 7월~익년 6월까지의 연산기준임.
2) 주요 수출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미국임.
자료: FAO, 「Food Outlook 2010」.

생산: 2010년 조곡 생산은 감소

2010년 FAO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조곡 생산량은 11억 200만 톤으로 역대 3번째로 많은 양이다. 반면, 올 초 전망에서는 전세계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신 전망에서는 작년 대비 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양곡년도 동안 이상기후로 인해 여러 주요 생산국들의 생산이 감소하였다. 특히, 보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뭄에 의한 영향이 심각했고, 미국 내 옥수수 단수가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곡 생산량은 역대 3번째로 많은 양으로 2009년 대비 2% 감소한 11억 200만 톤으로 추정된다.

조곡 중 전세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옥수수의 2010년 생산량은 8억 3,100만 톤으로 전망되는데, 전년대비 1% 증가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세계 옥수수 공급량 중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전망에 따르면, 10월을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비록 미국의 식부면적이 증가하였지만, 수확 결과를 볼 때 단수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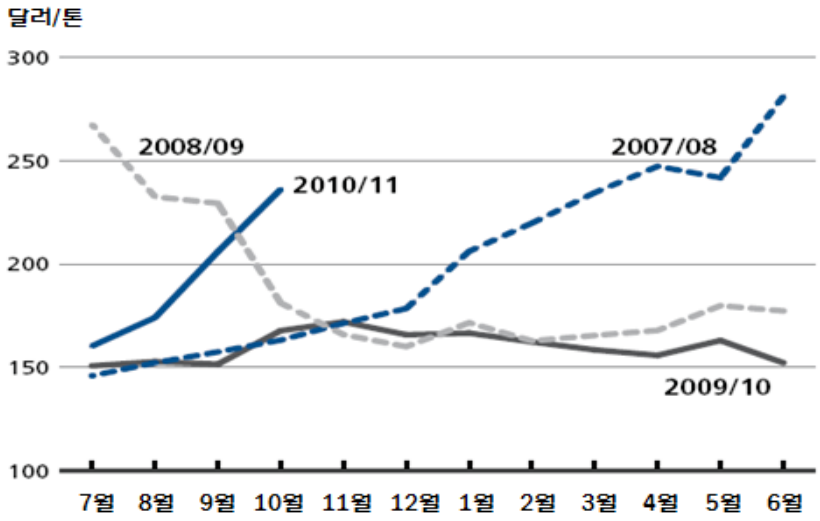
전에 비해 낮아, 전년 대비 생산량이 3% 감소하였다.

한편,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곡물 대부분을 조기에 수확했다.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은 2009년의 가뭄 피해를 회복할 만큼 충분했고, 브라질의 생산량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미 수확을 마쳤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년 대비 수확이 증가하였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옥수수 생산량이 많은 중국은 올해에도 풍작을 거두었고, 2년째 높은 생산 수준을 유지했다.

FAO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2010년 전세계 보리 생산량은 1억 2,5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한 수준이다. 비록 일부는 대부분의 생산국에서의 식부면적 감소와 생산시기 동안의 이상기후로 인해 더욱 감소세는 증폭되었다. 세계 보리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EU 국가들에 닥친 가뭄으로 인해 농지가 손상되어, 생산량이 약 15% 가량 감소했다. 생산량 저하가 가장 두드러진 국가는 심각한 가뭄 피해로 전년 대비 보리 생산량이 50% 감소한 러시아와 20% 감소한 우크라이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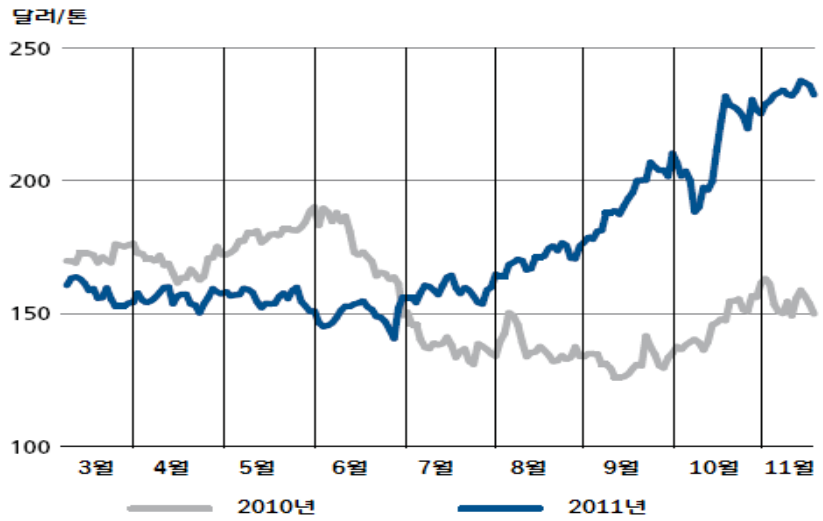
2010년 전세계 수수 생산 전망치는 5,9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하였으나, 2008년의 6,600만 톤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요 생산국 가운데 미국에서만 약간 감소했을 뿐,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작년의 가뭄으로 인한 생산 감소를 만회했다.

그림 5 옥수수 수출 가격 동향 및 전망



자료: FAO,「Food Outlook 2010」.

그림 6 시카고 선물거래시장의 옥수수 가격 전망



자료: FAO,「Food Outlook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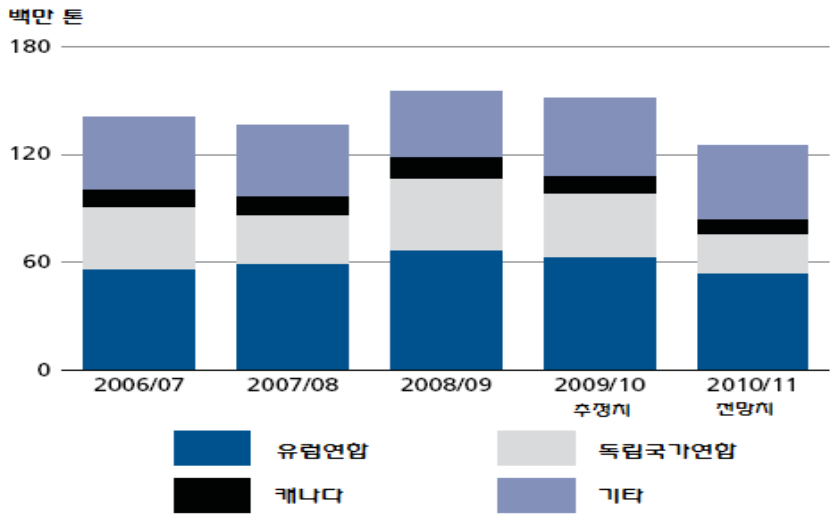
표 4 주요 국가의 조곡 생산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09 (추정치)	2010 (전망치)	2009대비 2010년 증감률(%)
미국	349.5	332.7	-4.8
중국	173.1	175.4	1.3
EU	155.5	139.0	-10.6
브라질	53.7	57.9	8.0
인도	34.2	37.6	10.1
러시아	33.4	19.6	-41.5
멕시코	30.	30.8	2.4
아르헨티나	16.5	28.6	73.0
캐나다	22.6	22.1	-2.3
우크라이나	24.0	22.1	-8.0
나이지리아	21.0	20.9	-0.7
인도네시아	17.6	18.0	2.2
남아프리카	13.1	14.2	8.2
호주	13.0	12.7	-2.3
에티오피아	13.1	12.8	-2.3
그 외 국가	154.8	157.6	1.8
전세계	1,125.2	1,102.0	-2.1

주: 국가별 순위는 세계 총 생산량(2008~2010년 평균 생산량) 대비 국가별 밀 생산 비중을 나타냄.
자료: FAO,「Food Outlook 2010」.

그림 7 국가별 보리 생산량 전망



자료: FAO,「Food Outlook 2010」.

교역: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2010/11년 세계 교역량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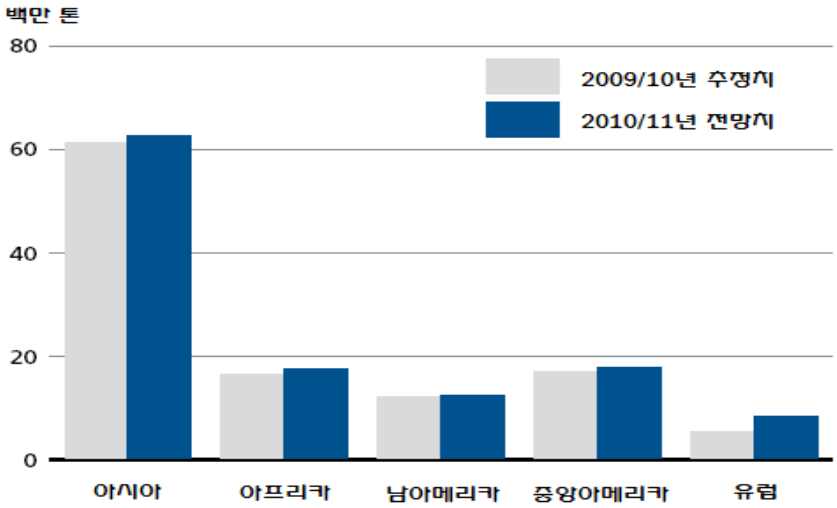
2010/11년 조곡의 세계 무역량은 옥수수 수요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1.2% 증가한 1억1,600만 톤으로 전망된다. 반면 옥수수를 제외한 다른 조곡의 수출은 2009/10년에 비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감소할 전망이다.

2010/11년 조곡의 세계 무역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억 1,600만 톤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옥수수 수요 증가로 인해 옥수수 수입이 9,100만 톤까지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 대비 300만 톤 증가한 수준이나, 여전히 2007/08년에 비해서는 1,100만 톤 더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옥수수를 제외한 다른 조곡의 수출은 2009/10년에 비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보리의 교역량은 30만 톤 감소한 16백만 톤으로 전망되었고, 수수 교역량 역시 110만 톤 감소한 6백만 톤으로 전망된다. 귀리의 교역량 역시 전년 대비 30만 톤 감소한 190만 톤으로, 이는 미국의 수입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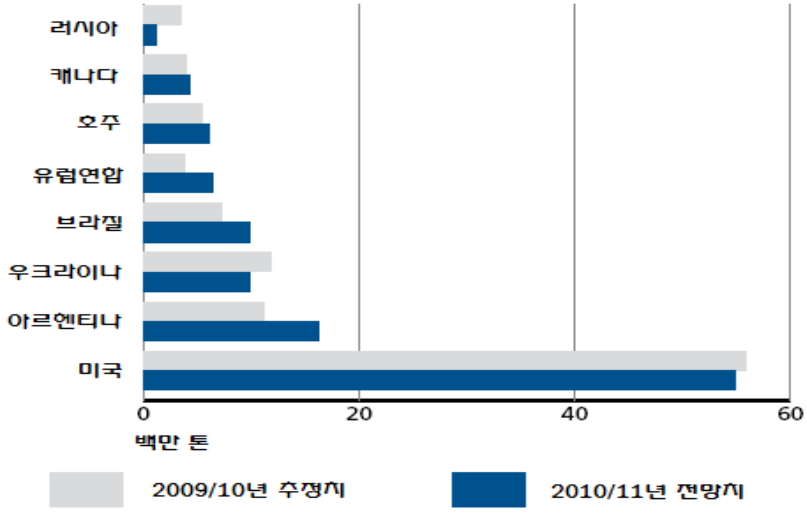
2010/11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입이 증가하였다. 특히 조곡의 최대 시장인 아시아 중 중국 본토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본토에서는 많은 수확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수입은 90년대 중반 이후 최고 수준인 1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료용 수요가 높고 국내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여 중국의 옥수수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조곡 수입량은 전년 대비 80만 톤 증가한 9백만 톤으로, 지난 3년 중 최고 수준이다. 이는 흑해 연안지역의 수출 가능한 사료용 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옥수수에 대한 구매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8 지역별 조곡 수입량 전망



자료: FAO,「Food Outlook 2010」.

그림 9 국가별 조곡 수출량 전망



자료: FAO,「Food Outlook 2010」.

아프리카의 조곡 수입 역시 전기 대비 증가하였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 해 풍작으로 인해 예상보다 감소할 수도 있다. 이집트는 사료용 옥수수 수입이 전년 대

비 50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다른 수입국들은 보리 생산 감소에 대한 보상으로 조곡 소비가 증가할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수입은 총 42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만 톤 감소하여 지난 2006/0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50톤의 생산 증가와 동아프리카 지역의 풍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단의 평균 수수 생산은 최소 20만 톤 이상으로, 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니제르의 기장과 수수 생산 호조로 역시 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지역의 총 조곡 수입은 전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한 2,7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지역 내 최대 시장인 멕시코에서 110만 톤 증가한 1,150만 톤으로,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 감소와 옥수수 수요 증가로 인해 수수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총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으로, 이는 EU와 러시아의 구매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EU에서는 옥수수와 보리 생산 감소 때문에 옥수수 수입이 210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며, 러시아 역시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국내 생산이 감소하여 주요 옥수수 수입국이 되었다.

EU의 전체 조곡 수출은 옥수수 수출 감소를 능가하는 보리 수출 증가로 인해 260만 톤 증가한 것으로 전망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보리와 수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수출량은 5,400만 톤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수출국 중 CIS국가들(독립국가연합), 특히 8월 곡물수출 금지조치 이후 러시아의 수출이 대폭 감소하였다. 우크라이나는 국내 생산 감소와 최근 수출 쿼터 규제로 인해 보리 수출이 급감하였다. 그러나, 올해 CIS 국가들의 생산 급감은 브라질과 남아프리카의 수출 증가와 상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말리위와 잠비아는 옥수수 생산 과잉으로 인해, 올해 수출 제한이 해제되었다.

소비 : 전세계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트렌드보다 낮은 수준

2010/11년 세계 조곡 소비량은 2009/10년에 추정한 것보다 1.1% 증가한 11억 2,600만 톤으로 전망되며 2010년 예상 생산량의 2,400만 톤을 능가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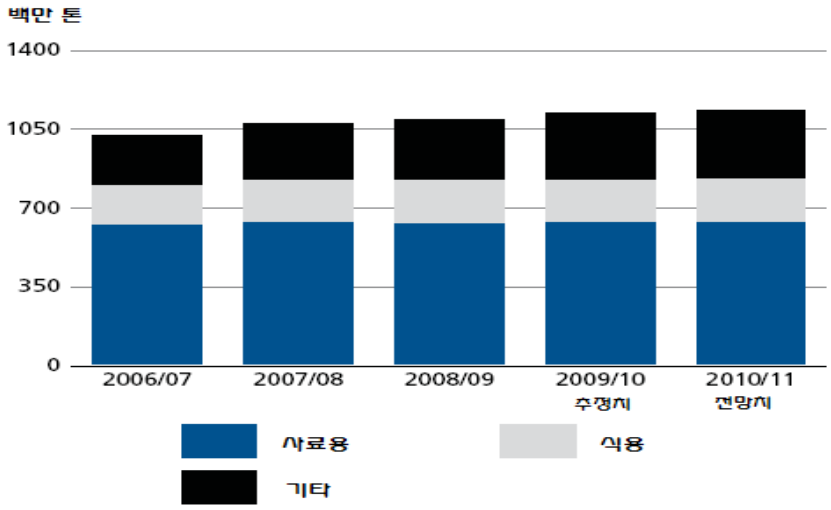
2010/11년 세계 조곡 소비량은 2009/10년에 추정한 것보다 1,1% 증가한 11억 2,600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0년에 예상 생산량의 2,400만 톤을 능가한 수준이다. 식용은 산업용 다음으로 빠르게 수요가 늘고 있고, 그에 비해 사료용 수요는 정체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로서, 선진국은 전체 조곡 수요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인구가 네 배 더 많은 개도국은 나머지 절반 이하만을 소비하고 있다. 2010/11년 식용 조곡 수요는 총 1억 9,6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식량부족 국가들(Low-Income Food-Deficit Countries)의 식용 조곡 수요인 1억 3,000만

톤을 포함하여, 개도국은 식용 조곡 수요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년 대비 수요가 증가한 데에는 아시아, 특히 인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국가들의 옥수수 생산 증가로 인한 공급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0/11년에는 조곡이 축산 사료용으로 많이 소비되었으며, 전세계 사료용 조곡의 수요는 6억 2,7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하였다. 개도국의 사료용 조곡 수요는 3년 연속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3% 증가한 2억 9,4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사료용 조곡 수요는 주로 중국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집트,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3억 3,300만 톤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해 축산물 수요가 감소하여 보리 공급도 감소하고 있다. 당초 선진국에서 계약할 예정이었던 사료용 조곡의 대부분은 보리를 주요 사료로 쓰고 있는 여러 CIS국가들에서 소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수요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국가는 러시아로, 사료용 보리 수요는 전년 대비 절반 가량 감소한 500만 톤 수준이다. 옥수수 가격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사료용 옥수수 수요는 3% 증가한 1억 3,500만 톤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4/05년의 1억 5,600만 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에탄올의 1차 부산물인 건조증류립(DDGs;Dried distillers grain)의 사료용 수요 증가는 대부분 최근 미국에서의 사료용 옥수수 수요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업적 용도로 조곡을 활용하는 분야 중에서, 최근 몇 년간 에탄올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다. FAO는 국제곡물협회(IGC;International Grain Council)에서 제공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곡물의 산업적 이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제곡물협회(IGC)에 따르면, 2010/11년 산업용 조곡 이용량은 대략 전년 대비 2% 증가한 2억 6,300만 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에탄올 생산에 쓰이는 조곡은 1억 4,400만 톤에 달하며, 그 중 미국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쓰인 물량은 1억 1,94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60만 톤 증가하였다.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최근 지난 2007년부터 15%의 에탄올 혼합물(E15)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향후 에탄올 및 옥수수 수요는 장기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유소 저장용량이나 펌프와 같은 물류시설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이번 연도에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브라질의 사탕수수로 생산한 에탄올의 수출 제한 및 미 달러 약세로 인해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옥수수에 대한 자국 내 수요를 계속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0 용도별 조곡 소비량 전망



자료: FAO,「Food Outlook 2010」.

STOCK : 전세계 재고는 급감 중

세계 조곡 재고량은 2011년 말 기준 1억 9,800만 톤으로 연초 대비 2,600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조곡들 중 옥수수 재고량이 6% 감소한 1억 6,100만 톤이며, 보리는 35% 하락하여 2,300만 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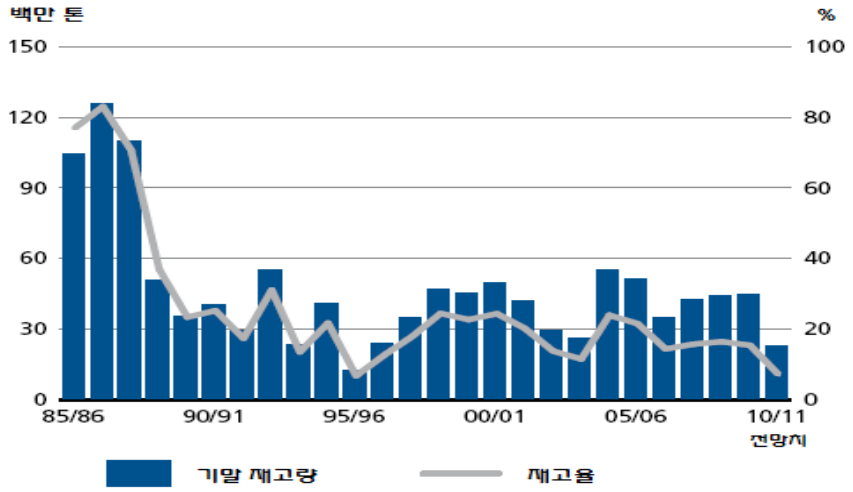
전세계 조곡 재고량은 2011년 말 기준 1억 9,800만 톤으로, 연초 대비 2,600만 톤(11.2%) 감소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재고량 증가 추세가 이어져왔으나, 올해에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2010 FOOD OUTLOOK'에서 발표된 전망치보다 500만 톤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주요 조곡들 중 옥수수 재고량이 6% 가량 감소한 1억 6,100만 톤이며, 보리는 35%나 하락하여 3년 내 최저 수준인 2,300만 톤 수준이다. 이와 같이 감소한 재고량의 대부분은 주요 수출국과 CIS 국가에서 발생했다. 현재의 전망 수준에서 조곡의 수요 대비 재고율(stocks-to-use ratio)은 20%에서 17.1%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2006/07년의 15.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주요 수출국들 가운데, 가장 재고량이 많이 감소한 국가는 미국으로, 올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미국의 재고량은 전년 대비 49%인 2,400만 톤 감소한 2,500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재고량 감소는 옥수수 비축분(reserve)이 2,100만 톤까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미국의 수요 대비 재고율은 지난 15년 중 최저인 7% 수준까지 감소했다. EU 역시 연초 대비 43%인 1,050만 톤 감소한 1,400만 톤으로 급감했다. 이와 같은 EU의 재고량 급감은 주로 보리 때문인데, 생산 감소와 수출 증가 때문에 보리의 재고율이 당초 예상된 800만 톤에서 550만 톤

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주요 수출국의 2010/11년 수요 대비 재고율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9%로, 이는 지난 10년 중 최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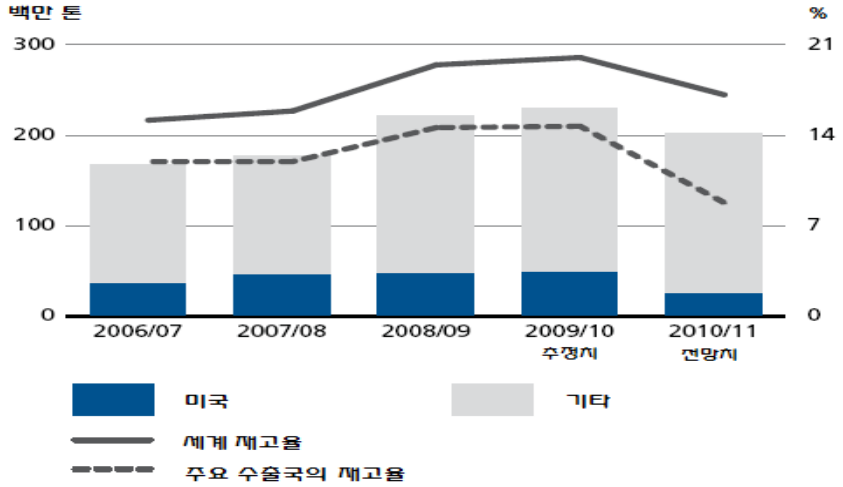
재고량의 급감은 러시아 뿐 아니라 브라질, 캐나다, 이란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중국, 남아프리카와 같이, 국내 생산 호조로 인해 여전히 조곡 재고량이 증가한 국가들도 있다.

그림 11 미국 옥수수 재고량 및 재고율 전망



자료: FAO,「Food Outlook 2010」.

그림 12 조곡 재고량 및 재고율 전망



자료: FAO,「Food Outlook 2010」.

3. 쌀

가격: 국제 쌀 가격은 다른 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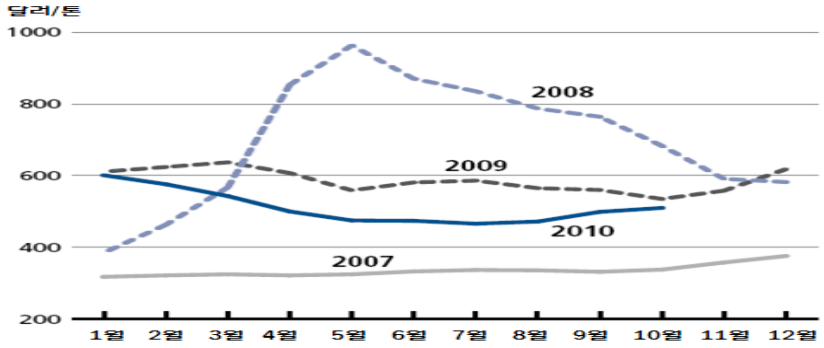
국제 쌀 가격은 파키스탄의 홍수와 필리핀, 태국, 베트남의 태풍피해와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10년 7월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졌지만 다른 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였다.

국제 쌀 가격은 파키스탄의 홍수와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서 태풍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와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10년 7월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FAO 가격지수에 따르면 쌀 가격은 7월에서 10월까지 14% 증가하였다. 이는 다른 곡물에 비해 적게 증가한 것으로 태국·베트남의 쌀 재고량 대량 방출로 가격상승 압박을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가격상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 증가율은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12%로,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Thai white rice 100% B"의 가격은 7월에 466달러로 1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하였으며, 타이바트(Thai bath)의 강세로 인해 2010년 10월에는 톤당 510달러로 2009년 10월 수준인 톤당 535달러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태국 쌀의 모든 품질은 홍수피해의 불안으로 11월 첫째주에 가격은 급등하였다. 파키스탄과 베트남의 쌀 수출가격 역시 높은 편이다. 파키스탄에서도 홍수로 인해 물류수송의 어려움과 생산량 감소로 인해 가격이 증가하였고 베트남은 최소수입단가의 상승과 재고량의 감소로 인해 가격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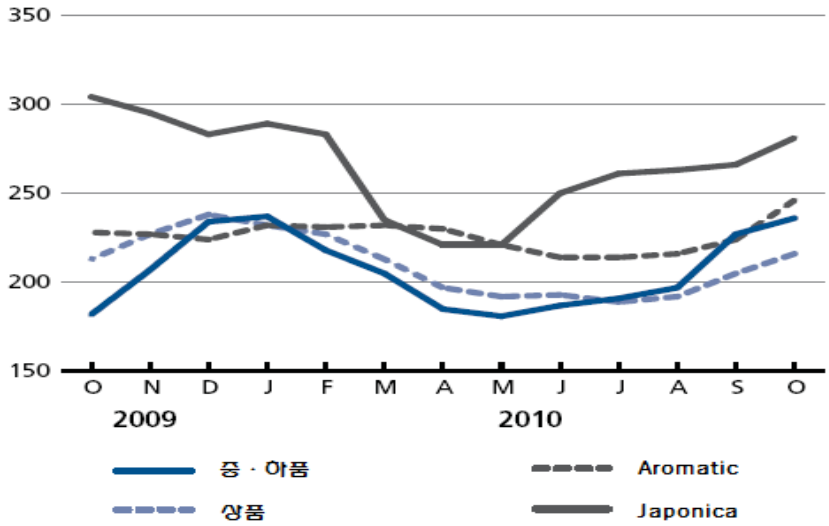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CBOT)에서의 쌀 가격은 2010년 7월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월 인도분 쌀 가격은 7월 이후 40%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쌀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인도가 비프리미엄 쌀 수출금지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국제시장에 쌀 공급은 2010/11년도의 두 번째 곡물을 수확할 때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림 13 쌀 수출 가격 동향



주: 가격은 태국 100% B, F.O.B 방콕 기준임.
자료: FAO, 「Food Outlook 2010」.

그림 14 FAO 쌀 가격 지수(2002-2004=100)



자료: FAO,「Food Outlook 2010」.

생산: 2010/11년도 국제 쌀 생산 전망은 긍정적

최근의 2010/11년도 국제 쌀 생산량 전망은 4억 6,700만 톤으로 지난 6월 발표된 FAO의 Food Outlook에서 전망한 4억 7,200만 톤보다 적은 수준으로 2009/10년에 전망한 것보다 1,100만 톤 더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하향전망은 2010년 중반에 나타난 라니냐와 같은 이상기후를 반영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는 2010년 쌀 생산량 전망을 2010년 6월 이후 하향조정하였다. 또한 이집트, 유럽과 미국도 곡물 생산량을 하향조정하였다. 쌀 생산량의 하향전망에 대한 주요 요인은 지난 8월 파키스탄에서 발생했던 홍수로 주요 쌀 생산지역인 발로치스턴(Balochistam), 펀자브(Punjab), 신드(Sindh) 지방의 871,000ha의 면적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서의 생산량은 2009/10년도의 670만 톤보다 적은 420만 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마다카스카르와 몇 개의 서아프리카 나라들은 알맞은 생육조건으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최신 전망에 따르면 인도 쌀 생산량은 2009/10년도 8,900만 톤에 이어 2010/11년도에는 1억 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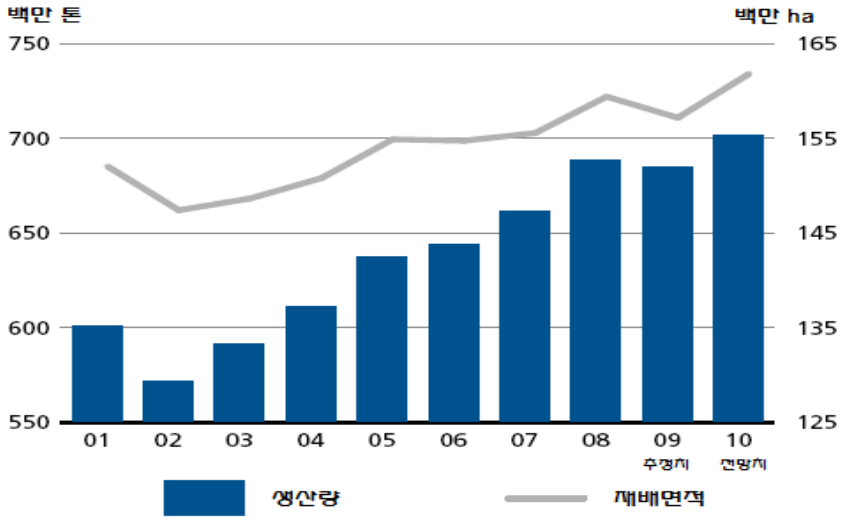
2010/11년도 국제 쌀 생산량은 4억 6,700만 톤으로 전망되며 2009/10년에 전망한 것보다 1,100만 톤 더 많은 수준이다.

가뭄, 홍수,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쌀 사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에서 쌀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한국, 태국은 뒤늦은 장마철, 과도한 비, 태풍으로 인한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11월 USDA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은 2009년에 비해 7% 증가한 739만 7천 톤으로 몇 달 전에 전망한 것보다 하향조정되었다.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파종면적이 이전에 비해 17%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호주는 2006년 이후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상기후로 인해 210만 톤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5 세계 쌀 생산량 및 재배면적



자료: FAO,「Food Outlook 2010」.

교역: 아시아 국가들의 수입 감소로 인해 2011년에 쌀 교역량 감소

2010년 세계 쌀 수입량은 아시아 국가들의 수입량 증가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1년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입 감소로 쌀 교역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FAO의 2010년 세계 쌀 교역량 추정치는 2009년보다 5% 증가한 3,080만 톤이다. 2010년 세계 쌀 수입량이 증가한 이유는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국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량을 증가시켰으며 브라질, EU, 나이지리아도 2009년에 비해 수입량이 다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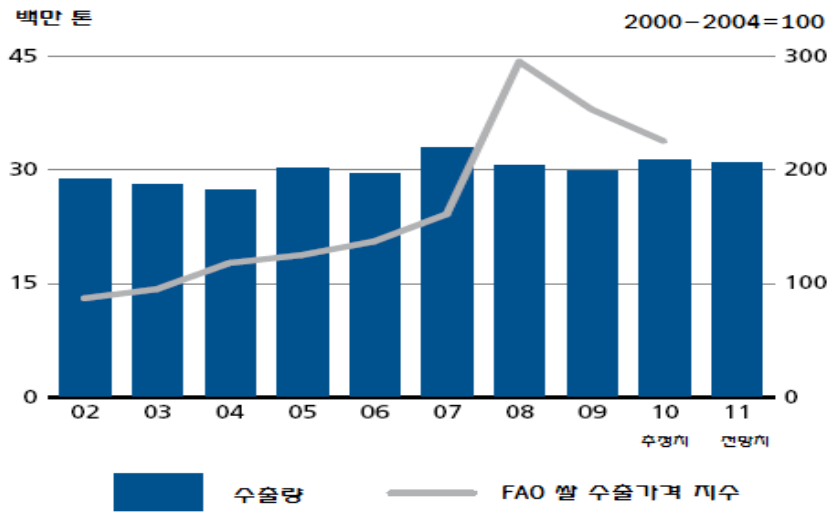
미국과 베트남은 2010년 쌀 수출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파키스탄의 수출량은 2009년 290만 톤을 능가하는 2,310만 톤으로 예상된다. 근동나라는 증가하는 국내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EU로부터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집트와 인도의 수출량은 2009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세계 쌀 교역량은 3,030만 톤으로 2010년보다 1.7%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감소는 2010년 1,450만 톤에서 2011년에 1,410만 톤으로 수입량이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국가들의 감소하는 수입량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2010년에 주요 쌀 수입국인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에서는 2010/11년도에 수입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북한, 인도네시아는 국가적 차원의 비축과 이상기후로 인해 감소한 생산량을 보충하기 위해 수입량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아프가니스탄, 아랍,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근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입량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풍작으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입량은 2009년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에서 급격한 쌀 생산량 감소로 약 100,000톤을 수입해야 수출 최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연안지역에서는 쌀 수입량이 약 6% 감소한 3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쌀 수입량은 2010년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150,000톤을 증가시킨 120만 톤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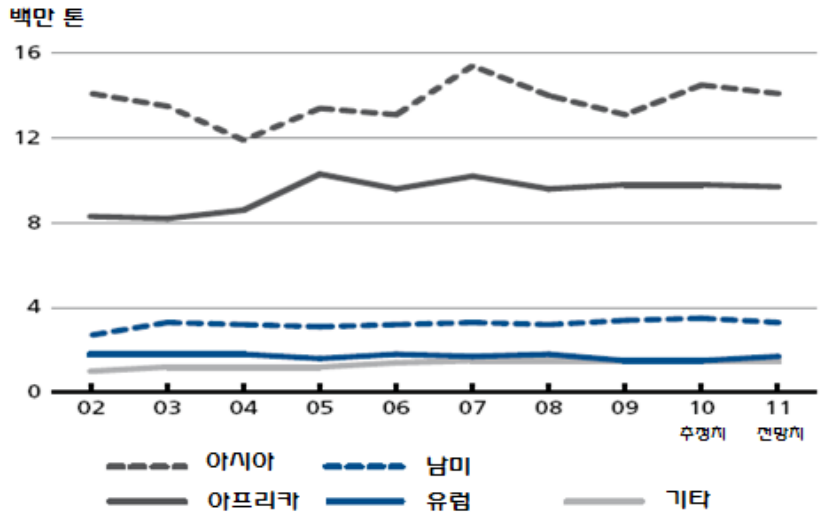
2010년도에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세계 주요 쌀 수출국들은 2011년에 쌀 수출에 제한을 받을 것이다. 특히 2011년도 파키스탄의 수출량은 42% 감소한 180만 톤으로 전망되며, 베트남은 2010년도에 700만 톤에서 감소하여 2011년에는 650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족분은 브라질, 인도와 특히 900만 톤을 수출하는 태국을 통해 보충될 것이다.

그림 16 세계 쌀 수출량 및 FAO 쌀 수출가격 지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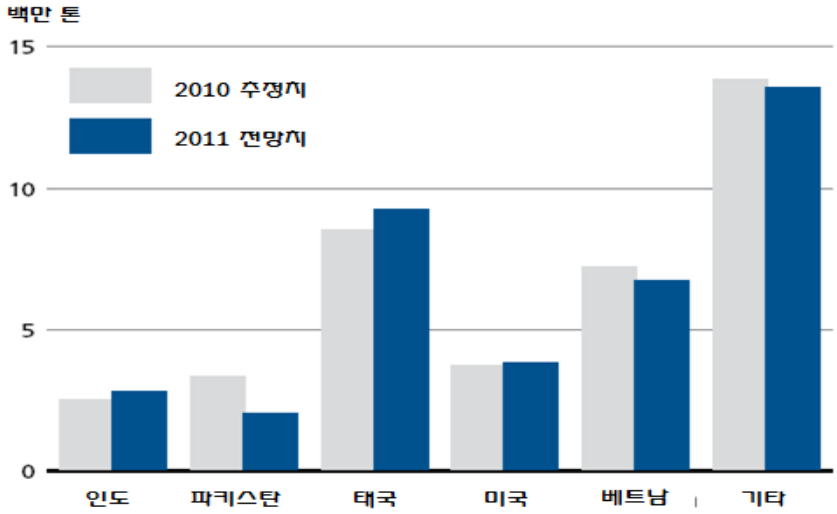
자료: FAO, 「Food Outlook 2010」.

그림 17 지역별 쌀 수입량 전망



자료: FAO,「Food Outlook 2010」.

그림 18 주요 국가별 쌀 수출량 전망



자료: FAO,「Food Outlook 2010」.

소비: 세계 인구 증가에 따라 쌀 소비 증가

2011년 세계 쌀 소비량은 2010년에 전망한 것 보다 1.6% 증가한 4억 6,000만 톤으로 예상된다. 그 중 3억 9,400만 톤은 식용으로 소비될 예정이며 1,200만 톤은 사료로, 종자 및 비식품산업에서 5,400만 톤이 소비될 전망이다.

최근 전망에 따르면 세계 인구 증가에 따라 쌀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1인당 식품 섭취량은 약 57kg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유럽,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1인당 식품 섭취량이 2010년보다 2011년에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라틴아메리카, 캐리비안은 2011년도에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몇 개의 대표적인 지역에서의 국내 쌀 도·소매가격 수준은 국제 쌀 가격의 움직임보다는 개별 국가에서의 특정 공급/수요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아시아의 국내 쌀 가격은 2009년과 비교하여 안정적인 반면 네팔, 한국,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국내 쌀 가격이 감소하였다. 또한 동부 아프리카는 국내 쌀 가격이 2009년보다 낮은 편이며, 아프리카 대륙의 남부와 나머지 지역에서는 2009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에서의 쌀 가격은 약화되고 있다.

2011년 세계 쌀 소비량은 4억 6,000만 톤으로 전망되며 그 중 3억 9,400만 톤은 식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1,200만 톤은 사료로, 종자 및 비식품산업에서 5,400만 톤이 소비될 전망이다.

표 5 세계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분	2008/09	2009/10 (추정치)	2010/11 (전망치)	2009/10년대비 2010/11년 증감률(%)
생산	458.3	455.6	466.7	2.4
교역	29.3	30.8	30.3	-1.7
소비	445.1	452.9	460.2	1.6
식용	382.1	388.0	393.9	1.5
기말재고	124.1	126.2	133.2	5.6
1인당 소비량				
세계(kg/년)	56.5	56.7	56.9	0.4
저소득식량부족국가 (kg/년)	68.8	68.9	69.0	0.1
세계 재고율(%)	27.4	27.4	28.5	3.8
주요 수출국 재고율(%)	17.5	21.7	18.4	
FAO 조곡 가격 지수 (200-2004=100)	2008	2009	2010 (1~10월)	1~10월 2009년대비 2010년 증감률(%)
	295	253	223	-12.5

주: 1) 교역자료는 회계연도 기준임.
2) 주요 수출국은 인도, 파키스탄, 태국, 미국, 베트남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FAO의 쌀 시장 모니터 참고 (http://www.fao.org/economic/est/publications/rice-publications/rice-market-monitor-rmm/en/)

자료: FAO, 「Food Outlook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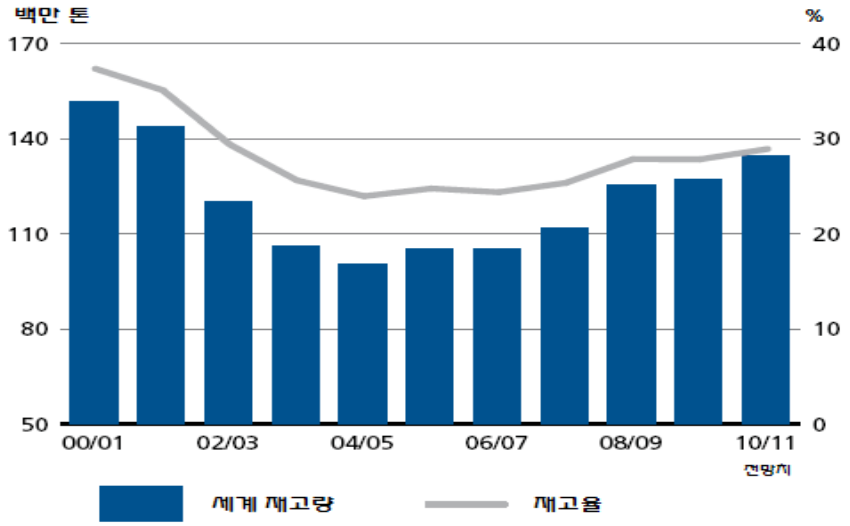
재고: 2011년도에 세계 쌀 재고량 증가

2010/11년도 기말 재고량은 1억 3,300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200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신 전망에 따르면 2010/11년도 세계 쌀 생산량은 쌀 소비량의 약 70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0/11년 기말재고량은 1억 3,3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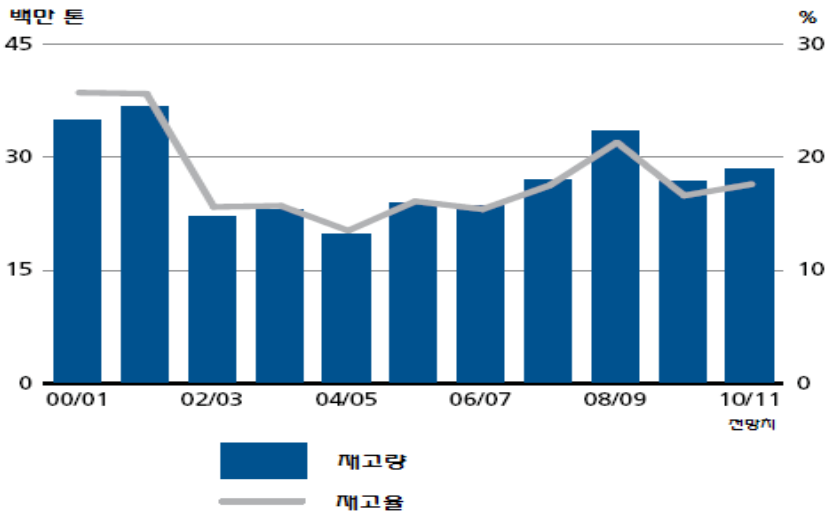
최대 쌀 보유국인 중국과 인도에서는 세계 쌀 재고량의 71%을 보유하고 있다. 두 나라 뿐만 아니라 2010/11년도 아시아의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와 아프리카의 말리, 마다가스카르, 미국도 재고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 브라질, 이집트,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는 재고량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미국, 인도와 같은 주요 쌀 수출국들에 의해 재고량은 170만 톤 증가한 2,79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요 쌀 수입국에 의해 쌀 재고 이월량은 약 2,280만 톤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9 세계 쌀 재고량 및 재고율 전망



자료: FAO, 「Food Outlook 2010」.

그림 20 주요 수출국의 쌀 재고량 및 재고율 전망



자료: FAO,「Food Outlook 2010」.

참고자료

http://stats.oecd.org/index.aspx.